

성명	전이준	수험기간	2023.07~2025.07.
학교	서울대학교	전공	화학생물공학
키워드	생동차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62회 변리사 생동차 합격자 전이준입니다. 2차 공부에 들어가면서 공부 방법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 합격 수기를 읽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언젠가 나도 합격수기를 쓸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상보다 합격 수기를 빨리 쓰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1차를 공부해 합격하고 나서 전역한 후 2차를 봤는데, 저의 합격 수기가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합격 수기를 작성합니다.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전체 2등:	97.5점	95점	95점

-민법- <점수: 97.5점>

【강의 및 교재】

저는 24년 및 25년 1차 대비할 때 김동진 교수님의 **민법공방 및 민법공방연습만**을 교재로 사용하였고, 김동진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서 공부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는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고 시작하여 시간이 많이 없었고, 강의를 듣는 데에만 급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을 한 번 응시한 후 24년 2월 김동진 교수님과 상담 후 중급 강의를 추천해주셨는데, 전역하기 직전에 시간이 꽤 많아 객관식과 문제풀이 강의를 둘 다 수강한 후 마무리 회독을 했습니다.

【시기별 강의】

23.7 ~ 23.9	23.10 ~ 23.12	24.1 ~ 24.2	24.8 ~ 24.11	24.12 ~ 25.2
기본, 중급강의	객관식 문제풀이	민법공방 및 민공연	중급, 객관식 문풀	민법공방 및 민공연 회독

1차 시험 처음 보았을 때는 모든 기본 커리큘럼 강의를 들은 후 혼자 복습할 때 너무 방대한 양의 민법을 보면서 좌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강의는 다 수강하기는 했었는데, 군대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스스로 복습했던 시간이 매우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차 시험 초시 때는 70점이라는 초라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김동진 교수님과의 상담 후 기본강의를 다시 수강하는 대신 중급강의가 열릴 때까지는 민법공방을 혼자서 회독하는 것을 추천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대 내에서 1차 공부를 시작했던 보상심리 탓인지 24년 3월부터 24년 7월까지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1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24.8부터 중급강의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회독 방법】

민법의 핵심은 **‘반복’**인 것 같습니다. 초시 때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그 날 복습복습할 때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민법공방 회독을 게을리 했던 것이 초시 때 민법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동진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거나 **‘있다 -> 없다(X)’** 등과 같이 **시험에 바꾸어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을** 알려주시는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민법공방을 적어도 10회독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기본기가 점점 쌓이고 민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제일 효율적인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법공방으로 민법의 기본기를 쌓은 후 민법공방연습으로 출제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 확인한 후 민법공방연습에서 틀렸던 부분은 민법공방에 다시 표시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방대한 양의 민법을 **민법공방에 '단권화'**할 수 있었고, 시험 직전 **효율적인 회독**을 여러 번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법공방연습을 1회독 한 후 민법공방을 읽으니 기본서인 민법공방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법공방연습을 풀 때 **사례문제**와 같이 기본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문제 옆에 체크표시**를 해두고 민법공방 회독 시 같이 보면서 회독 수를 늘려나갔습니다.

【시기별 공부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초시 때는 강의만 수강하고, 혼자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 공부방법이라고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시를 준비할 때는 민법이 양이 많기도 하고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 큰 힘을 주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24. 08 - 24. 09 (3.5h per day): 민법 중급강의를 수강하면서 민법공방 회독을 꾸준히 했습니다. 특히 회독할 때는 **'누적적 공부'**를 했는데, 전 날 들었던 강의 내용을 오늘 복습할 때 같이 보는 것입니다. 2번째 시험을 준비하던 것이다 보니 앞뒤에 연결되는 내용들은 책의 앞뒤를 오가며 읽을 수 있다는 점이 민법공방 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누적적 복습을 통해서 빠르게 민법 실력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에 1회분 강의 + 전날, 오늘(2회분) 내용 복습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중급강의를 모두 수강한 이후에는 객관식 강의를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민법공방 + 필기노트를 복습했습니다. 특히 복습할 때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때는 김동진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민법공방 책에는 **오직 연필**로 표시하였습니다.

24. 10 (3.5h per day): 민법 객관식강의를 수강하며, 문제풀이에 대한 감을 다시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문제 풀이강의는 어렵지 않게 수강할 수 있었는데, 24.08 - 24.09까지 **민법공방**을 계속해서 **회독**하면서 **기본기를 쌓았던** 점이 문제풀이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4. 11 - 24. 12 (4h per day): 정규강의가 모두 끝나고, 이제 혼자서 민법공방과 민법공방연습을 효율적으로 회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법공방연습을 보는 것보다는 민법공방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 기본기를 잘 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민법공방을 중심으로 회독**했습니다. 앞으로 잘 보지 않을 민법공방연습은 효율적으로 문제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민법공방 책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은 표시하고 사례문제와 같이 민법공방에 필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민법공방연습에 **포스트잇**을 활용해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민법공방연습을 약 2회독 정도하며, 시험 전까지 봐야 할 부분들을 따로 **분류함**과 동시에 민법공방을 회독했습니다.

25. 01 (3.5h per day): 앞서 두 달 동안 정리한 압축된 민법공방연습과 민법공방 중 밑줄 그어진 부분을 계속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양을 줄여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민법공방 연습에서 포스트잇 붙어있던 내용도 숙지되었으면 때는 과정을 통해 양을 점점 더 줄여나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민법공방 중 잘 아는 판례, 조문 옆에는 **'체크표시'**를 해두어 다음에 회독할 때는 가볍게 내용만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회독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민법공방을 회독할 때 1달이 걸렸다면, 1월에는 의도적으로 회독속도를 빠르게 하면 이 조문 밑에는 어떤 판례들이 달려있는지 상상이 되면 그 부분은 읽지 않고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하여 회독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25. 02(3h per day): 이제는 기본서인 민법공방도 **양 줄이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민법공방에는 연필로만 밑줄이 그어져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형광펜**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법공방 회독 중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판례가 바뀌어 나오면 틀리게 나올 것 같은 내용 위주로 민법공방에 형광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회독 일 수를 1달 -> 2주 -> 1주 -> 3일로 회독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었고, 시험 전 날에는 민법공방 및 민법공방연습 책에서 표시해뒀던 부분만 보면서 내용 전체를 1회독 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95점>

【강의 및 교재】

특허법: 특허법 기본서 및 기출문제집 교재 + 기본강의, 판례강의, 최신판례강의
상표법: 기본서, 부교재, 객관식, 조문 교재 + 기본강의, 정리강의, 객관식강의, 최신판례강의
디자인보호법: 기본서, 기출문제 교재 + 기본강의, 최종정리강의

【특허법】 19/20

초시 때 민법 기본강의를 수강함과 동시에 임병웅 변리사님의 특허법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민법과 다르게 절차법인 특허법은 기본강의만 듣고서 특허법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허법을 처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듣고 혼자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군대에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 특허법 기본서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빠르게 도해특허법을 구매해 혼자 복습했는데, 간단한 내용들만 공부한 후 시험을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시험 때는 선지가 2~3개씩 많이 헛갈렸었는데, 운이 좋아 17/20개를 맞았습니다.

재시 때는 기본 강의는 다시 수강하지 않았고, 8월부터 판례강의 및 조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판례강의는 결과적으로 1차 시험을 잘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모르겠지만, 판례강의를 들으며 복습하고 2차 때 판례를 많이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수강하였습니다. 이후 **조문강의**를 같이 수강하였는데, 1차에서 조문의 중요성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문에서 기간이나 '~해야 한다, 할 수 있다'의 구분 등과 같이 헛갈리게 바뀌는 부분이 합격 점수를 판가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문강의를 다시 수강했던 것이 특허법 내용을 빠르게 1회독 할 수 있었음과 동시에, 조문문제까지 잘 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독은 리담 특허법으로 했습니다. 책이 두껍지만, 중요한 내용 위주로 회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각주를 이용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법공방 회독과 마찬가지로 양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회독했고, 마찬가지로 회독 일수를 줄이면서 시험 전날에는 표시해둔 부분을 중심으로 회독하여 1회독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상표법】 10/10

초시 때는 특허법 기본강의 수강이 끝나고 상표법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특허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표의 유사 또는 식별력 개념을 배우고 이를 심판, 소송 등에 적용하니 점점 더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특허와 다르게 상표에서 양이 많은 취소심판제도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초시 때는 7/10개를 맞았습니다.

상표의 경우 초시 때 공부한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상표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기 때문에 워크북을 활용한 핵심이론강의를 활용해 상표법의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특허와 달리 상표의 경우 초시 때 머리 속에 남아있는 내용이 거의 없었고, 다시 기본서로 공부할 자신이 없어서 기본서를 구매하기는 했지만 **워크북**을 이용해서 공부했습니다. 워크북은 핵심적인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 해당 내용의 기본서를 읽어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민법 또는 특허와 다르게 압축되어 있는 내용의 워크북을 이용해 공부했기 때문에 단권화는 따로 하지 않았고, 객관식 문제집과 함께 회독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보호법】 9/10

초시 때 김웅 변리사님의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혼자서 회독을 이어나갔습니다. 상표법보다는 특허법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창작비용이성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특허, 상표보다 시간을 적게 투자해도 점수가 잘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결국 시험에서는 5/10개를 맞았습니다.

특허, 상표보다는 1차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상표보다는 내용이 적어서인지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표법 워크북 강의를 모두 수강한 후 기본강의를 다시 수강했고 특허법 내용을 많이 이해한 후 수강하니, 초시 때 수강했던 기본강의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디자인보호법을 선택과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면 특허법

과 다른 부분(창작비용이성, 디자인보호법 제 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만을 **선택적으로 공부**하고 개인 역량에 맞춰 자연과학이나 특허법, 상표법 판례 암기 등을 하는 것이 빨리 수험기간을 끝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공부와 연계】

변리사시험에서 **특허와 상표**는 2차에서도 응시해야하는 시험이기에 **중요성**은 두 과목 모두 높습니다. 1차에서의 특허, 상표와 2차에서의 특허, 상표는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 산업재산권법의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2차에서 잘 보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1차 시험 대비 시 2차 대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1차 시험을 응시하기 1달 전 학원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이번 1차 시험은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이상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차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판례를 외우는 게 좋을지’를 61기 선배 변리사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배는 1달 남은 시간에 ‘판례를 외우는 것은 너무 도박이고, 차라리 조문이 중요하니 **중요한 조문을 보면서 ~ 조 ~항을 외우면 좋다**’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재시 때 완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2024년 12월부터였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습하면서 2차 대비(**판례 암기**)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문 번호를 외웠던 것이 2차 시험 답안지 작성 시 조문 번호를 병기할 때 시간을 들이지 않았던 것이 **시간 단축**에도 매우 효과적이었고, 또한 좋은 인상의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1차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11월 또는 12월 전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특허는 최근 10개년 **판례 암기**, 상표는 최근 5개년 **판례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저와 같이 시험이 안 남았을 때 2차 대비를 동시에 하고 싶으시다면 중요 조문의 번호를 외우시는 것이 2차 때 많은 도움이 되니 참고해서 산업재산권법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95점>

【자연과학 소개】

자연과학 과목은 변리사 수험계에서 수험생 별로 **편차가 제일 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영재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 때 일반물리, 일반화학까지 모두 수강한 상태이고 대학교 때 같은 과목을 또 수강했기에 물리, 화학에 대한 베이스는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하 자연과학개론 합격 수기 읽으실 때 참고바랍니다. 생물이랑 지구과학은 외우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 화학, 지구과학을 main으로 한 후 생물은 7 ~ 9개를 맞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위와 같이 자연과학에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2과목을 8 ~ 9개, 나머지 2과목을 6 ~ 7개 맞는 것을 목표로 잡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의 및 교재】

자연과학개론은 4과목 모두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도 했고, 특히 어렵다고 하는 물리 및 화학에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강의를 많이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강의를 찾아볼 때로부터 5년 전 유튜브 강의에서 합격의 법학원 강사님들의 자연과학 수업이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어 4과목 모두 합격의 법학원에서 수강했습니다.

물리: 객관식 강의 (알기쉬운 변리사 물리)

화학: 객관식 강의 (일반화학 IFF)

생물: 핵심이론 강의, 객관식 강의 (초시: 따뜻한 생물 -> 재시: 프린트)

지구과학: 기본이론 강의, 객관식 강의 (CUTY 지구과학 개념서, 워크북, 기출문제)

【물리】 10/10

초시 때는 민법, 산업재산권법을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비교적 자연과학에서는 물리에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기출문제 5개년치만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 푸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문제를 풀다보니

시험장에서 공식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시간 조절에 실패해 8/10개를 맞았습니다.

이후 재시 때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 **기출문제** 및 알기쉬운 변리사 물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기 시작했고, **틀린 문제들만 체크해놓고 반복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원래 물리의 베이스가 있기에 공식집 같은 것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 틀린 문제 페이지에 포스트잇을 붙인 후 시험 직전 그 문제들만 봤습니다.

【화학】 10/10

물리 뿐만 아니라 화학에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 물리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5개년치만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61회 변리사 화학 문제의 경우 계산 문제가 많았는데, 실제 계산을 직접 해보지 않고 들어가서 시험 때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화학 파트에서 시간 조절에 실패했고, 화학은 5/10개를 맞았습니다.

이후 재시 때는 물리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화학도 내용은 알고 있었고, 문제풀이가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해 물리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및 IFF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IFF 객관식 문제는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에 비해 어려운 편인 것 같습니다. 화학과목을 main으로 잡은 분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좋은 문제집인 것 같습니다.

【생물】 9/10

물리, 화학과 다르게 생물은 베이스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여 초시 때도 기본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방대했고, 처음에 따뜻한 생물로 교재를 회독하다가 내용이 너무 많고 물리, 화학을 main으로 하면 충분하다 생각하여 내용이 적은 핵심 따뜻한 생물로 바꾸어 회독했습니다. 생물의 경우 다양한 단원 중 자주 나오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강의를 들으며 자주 나오는 단원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시 때는 생물 파트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얼마 공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8개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시 때는 생물 때문에 불합격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커졌고, 합격의 법학원의 김우진 강사님의 교재를 활용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까먹은 내용들도 많아 기본강의부터 다시 수강하면서 내용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기출문제만**을 풀었고, 다른 PEET 문제들은 내용이 어려워 풀지 않았습니다. 62회 생물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워 모르는 선지가 꽤 많았는데, 운이 좋아 실력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 9/10

지구과학도 고등학교 때 수강하기는 했으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초시 때는 기본강의 및 워크북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지구과학은 내용 자체가 많지 않고 어려운 내용이 없어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8/10개를 맞았습니다.

재시 때는 지구과학 강의는 따로 수강하지 않았고,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을 많이 공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월 쯤 여유가 생겨서 개념서에 있는 지엽적인 내용까지 외우려고 했었는데, 그러다보니 자주 나오는 파트들의 개념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2회 변리사 시험 문제도 지엽적인 내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시험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겠지만 지구과학의 경우 지엽적인 내용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공부하시고, **다른 과목에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 문제풀이】

자연과학의 경우 다른 법 과목에 비해 시간이 부족한 과목입니다. 어렵게 나온 년도의 경우 물리, 화학에서 문제풀이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생물, 지구과학의 경우 알면 풀 수 있고 모르면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물 - 지구과학을 먼저 풀이한 후 잘 기억나지 않는 문제는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생물, 지구과학**을 풀이하는데 **합쳐서 10 ~ 15분** 정도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 화학**의 경우 각각 **20 ~ 25분씩 투자**하였고 모르는 문제 및 검산을 5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물리, 화학은 계산 및 검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물과 지구과학을 빠르게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시간 관리】

저는 24년 12월부터 군대 말출을 나오면서 제 시간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평일에 5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었고, 주말에 9시간 정도 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이틀을 하루로 계산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군대 말출을 나오고 나서부터 시험일까지 복귀하는 날을 제외하고 하루에 10시간정도 공부하였습니다. 각 과목별 공부 비율은 민법 : 산업재산권법 : 자연과학 = 1 : 1 : 1로 공부하였습니다. 처음 말출 나와서 공부를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할 분량을 정해놓지 않고 과목별, 시간을 쪼개서 각각 4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목표 의식이 없다보니 회독 속도가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의 문제점을 발견한 후 과목 별로 **회독할 분량을 정하고**, 최대한 시간 내에 회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만든 것이 앞서 얘기했던 회독 일수를 줄어가는 것을 계산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p>변리사 1차 마지막 공부 계획 (총 공부 시간 : 10h/1day)</p> <p>*민법 → 강연 문제풀이 2h</p> <p>- 민법공방 : 280p (1.5h) + 민문연 커리 판 (1.5h) → 3h</p> <p>*산업재산권법</p> <p>- 강독해법 : 1250p : 1h + 예상문제 500 (0.5h) → 2h</p> <p>① 강독해법 ② 가환식 질문 + 예상문제 + 가환 ③ 가환식 질문 + 예상문제 + 가환</p> <p>- 상환법 컴플렉스 : 460p (1h) + 객관식문제집 : (0.5h) → 2h</p> <p>① 객관식 문제집 ② 객관식 문제집</p> <p>- 디자인보관법 : 301p (0.5h) + 가환문제집 : (0.5h) → 1h</p> <p>① 객관식문제집 ② 객관식 문제집</p> <p>*자연과학</p> <p>목표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p> <p>생물 :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p> <p>화학 : 1. 1차원 운동 + 1.3차원 운동 + 1.4차원 운동 (5.1), (7.1), (9.1), (11.1) 5의 1h</p> <p>2차원 운동 + 2차원 운동 + 2차원 운동 (5.2), (7.2), (9.2), (11.2) 5의 1h</p> <p>자연과학 : 1차원 운동 + 1.3차원 운동 + 1.4차원 운동 (5.1), (7.1), (9.1), (11.1) 5의 1h</p> <p>2차원 운동 + 2차원 운동 + 2차원 운동 (5.2), (7.2), (9.2), (11.2) 5의 1h</p> <p>자연과학 : 1차원 운동 + 1.3차원 운동 + 1.4차원 운동 (5.1), (7.1), (9.1), (11.1) 5의 1h</p> <p>2차원 운동 + 2차원 운동 + 2차원 운동 (5.2), (7.2), (9.2), (11.2) 5의 1h</p>	→	<p>11/29 (목) 민법 민법공방 (1~55p) 45min (-1h 15m) 민법강연연습 (1~59p) 57min (-3min) → 1h 42m (-1h 18m)</p> <p>특허법 특허법 (20~100p) 1h 2min (-28min) 예상문제 500 (-24p) 10min (-20min) 가환문제 (11p) 10min (-20min) → 1h 22m (-1h 8m)</p> <p>11/30 (토) 디자인보관법 객관식 문제풀이 (4/4) : 1h 35m</p> <p>민법 민법공방 (56~111p) 53min (-1h 7m) 민법강연연습 (55~109p) 48min (-12m) → 1h 4m (-1h 19m)</p> <p>특허법 강독해법 (101~169p) 45min (-45min) 예상문제 500 (29~49p) 20min (-10min) 가환문제 (11p~21p) 12min (-18min) → 1h 17min (-1h 13min)</p> <p>상환법 상환법 컴플렉스 (1~38p) 41min (-19min) 객관식문제집 (1~35p) 58min (-2min) → 1h 39m (-2min)</p> <p>목표 달성</p> <p>총 공부시간 6h 16min (-3h 44m)</p> <p>1주일 더 열심히</p>
공부 시작 전 rough한 계획 세우기	하루 공부량 기록	

위와 같이 **공부 계획**을 세우고 하루에 정해놓은 해야 할 분량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기록했습니다. 이후, 나중에는 같은 시간을 공부하되, **보는 분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회독 속도를 줄여나갔던 것 같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시험 직전 최근에 보았던 문장들은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회독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민법을 예시로 들자면 처음에 ~55p까지는 민법총칙 내용이고 많이 본 내용임에도 민법공방을 읽는데 45min이 걸렸는데 앞서 얘기했던 방법으로 회독하니 1월말이 돼서는 약 150p읽는데 1.5h 정도 걸렸으니 **회독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1차 시험은 보아야 할 과목도 많고, 분량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다보니 위와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저렇게 아이패드에서 단순 기록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지 않고, 캘린더에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것보다는 수정할 때도 편하다보니 **계획 세우는데 드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

저는 1차 준비할 때는 체력 관리는 따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차 기간의 대부분을 군대에서 보냈고, 1월말에 전역해 전역 후 1달도 채 되지 않아 1차 시험이 있었기에 체력 관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공부하지 않았던 24년 8월까지 체력단련실에 가서 헬스를 많이 했었는데, 그 때 운동했던 것이 1차 시험 대비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1

차 시험은 시험에 가까워 질수록 열심히 하는 수험생들이 결과가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1차 대비할 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운동을** 해놓으신다면 체력적인 2차 시험 동차기간까지는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험이 많이 남지 않으셨다면, 체력적으로 **우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법과목 문제풀이 방법】

시험장에서 법과목 문제풀이는 객관식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강사님들께서 잘 알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1차 초시 시험 때 법의 기본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과락은 맞지 않았었는데, 그 때 **△O와 △X**를 사용했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실력이 부족할수록 선지의 정오를 완벽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애매한 것**을 단순히 △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O, △X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초시 때는 특히 위와 같이 분류한 것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할수록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일 경우 △X중 하나로 골랐습니다. 물론 모든 선지를 정확히 알고 문제를 푸는 것이 best이지만, 짱돌 문제도 많이 등장하다 보니 위 표기를 잘 활용하면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제를 맞출 확률이 올라가고,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을 넘을 수도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의견】

처음에 변리사시험에 입문했을 때는 주변에 변리사 합격하신 분들이 없었고, 그래서 합격자 인터뷰나 합격 수기를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변리사 2차 시험이 너무 어렵다보니, 합격자 분들은 1차 시험 합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게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2차 시험이 1차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은 맞지만 **1차 시험 합격 또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1차 시험의 응시생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합격자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도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을 응시할 자격도 주어지는 것이기에 1차 시험을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의 점수에 따라 1달이라는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텐데, 1차 점수를 안정적으로 받아야 편안한 마음으로 휴학한 후 2차 공부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동차생의 경우 2차 시험까지 5달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그 중 1달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동차는 확률이 급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물론, 1차 시험 점수가 최종 합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는 않지만 합격자 발표 날까지 1차 합불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공부하는 것도 큰 장점이니 시험 날까지 열심히 달리고, **안정적인 점수로 2차 시험 대비**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전체 47등:	55.33점	52.66점	61.66점	63.33점

-민사소송법- <점수: 55.33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 커리큘럼을 따라 기본강의 - 사례강의 - 기초 GS - 실전 GS를 수강하였습니다. 기본강의, 사례강의는 학원에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동영상강의로 수강하였고, GS는 직접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배 변리사님들의 조언을 받아 실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 교재

이창한 강사님의 통합 민사소송법, 사례 민사소송법, 진도별 민소법 기출문제를 사서 회독하였고, 기초 GS 및 실전 GS B형에서 나눠주신 자료만을 활용해 공부했습니다.

【수강한 GS】 (스터디 포함)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기본강의	사례강의	기초 GS	실전 GS B형

【시기별 공부】

25.02말 ~ 25.03말: 기본강의가 오픈하자마자 바로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합격자분들에게 동차생은 민소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본강의를 듣고 복습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25.03말 ~ 25.04말: 기본강의를 빨리 수강하고, 사례강의가 개강하자마자 바로 수강했습니다.

25.05: 기초 GS를 수강하면서, 진도별 민소법 기출문제 중 이창한 강사님이 수업시간에 짚어주시는 문제 위주로 주말에 공부했고, 평일에는 통합 민사소송법을 회독했습니다.

25.06: 실전 GS B형을 수강하면서 주말에는 GS 쓰느라 민사소송법을 거의 공부하지 못했고, 평일에는 민사소송법 회독 및 GS 복습을 같이 했습니다.

25.07: 통합 민사소송법과 사례 중 GS에 나오지 않은 문제들 위주로 복습했고, GS문제에서 답안을 잘 작성하지 못했던 문제는 목차 잡기 및 판례 암기하는데 공부했습니다.

【회독 방법】

기본강의 수강 시: 기본강의를 수강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고 느껴 그 날 수강한 부분의 책을 읽는 방식으로 복습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판례 하나씩 읽어볼 때는 문구가 이해가 안 되는 판례는 거의 없었는데, 그 판례의 **좌표 설정**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께 두 가지 팁을 받았습니다. 먼저, **목차집**과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창한 강사님 카페에 가면 통합 목차집을 찾을 수 있는데,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책의 내용을 복습한 후 목차만 보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떠올려지지도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추후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례집**을 미리 구매해서 해당 내용의 문제를 같이 봤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양이 방대하고, 민법과 달리 판례를 모두 암기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처음 책을 보면 어떤 판례가 중요한 판례인지, 이러한 판례까지 암기해야하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사례집은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사례집에 있는 판례들**을 먼저 타겟해서 **암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례강의 수강 시: 사례강의 수강할 때는 그 날 강의를 수강하고, 풀었던 문제들의 **목차들을 잡는** 방식으로 복습했습니다. 하지만 사례집만 보기에는 민사소송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통합도 같이 회독**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통합을 회독할 때는 기본강의 때와 마찬가지로 목차집과 함께 공부했는데, 기본강의와 달리 **목차집을 먼저** 보고 내용을 떠올려본 후 다시 **통합을 회독**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사례와 통합을 보는 시간은 1:1로 공부했습니다.

GS 시즌: 이 때부터는 사례집을 거의 보지 않고 **통합으로 회독**했던 것 같습니다. 5월(기초 GS 시즌)에는 1주일에 한 번 통합 회독할 수 있는 속도가 나오지 않아 **2주 단위**(10일, 주말 제외)로 쪼개 통합을 회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공부계획은 통합을 보고 해당 파트 사례집을 같이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 통합만 회독하기에도 바빴습니다. 그렇게 통합을 회독하다보니 회독 속도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도가 빨라지면서 회독 속도를 점차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실전 GS 시즌에는 범위가 전범위로 바뀌다보니 1주일에 통합 1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회독했고, 보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은 따로 체크해뒀던 학원 가는 시간 또는 자투리 시간에 봤습니다.

GS 끝 ~ 시험 전: 이 때는 **1주일 단위**로 쪼개서 통합, 사례집, GS 문제를 회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GS 끝나고 나서부터는 불안감도 있어 암기가 되지 않은 판례들을 볼 때마다 회독 속도가 느려졌고, GS 끝난 다음 주는 회독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시험 전 2주는 무조건 1주일 단위로 쪼개서 회독하는 연습을 했고 잘 풀 수 있는 문제, 잘 암기된 판례는 보지 않고 넘기는 방식으로 회독했습니다. 통합과 사례집 GS 문제는 3 : 1 : 1의 비율로 회독했습니다.

【암기 방법】

저는 두문자 암기보다는 키워드 암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두문자로 외워지는 것은 두문자로 외우는 것도 상관없지만, 특히 민사소송법의 99% 판례는 **키워드 암기**를 했습니다. 특허법, 상표법과 달리 처음 보는 판례들이라보니 암기하기 특히 어려워서 다른 과목보다 **암기 시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강의를 들 때는 이창한 강사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판례, 사례강의에서 나온 판례를 외웠고, 이후에는 통합에 있는 판례를 차근차근 암기했습니다.

처음 통합을 회독할 때는 암기되지 않은 판례들을 외우려고 하다 보니 회독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과목 기본서를 회독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회독할 때 판례를 암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책을 회독할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아래 contents를 채워 넣어야하는데, 저는 판례 암기를 하다보면 그 판례의 좌표 설정을 하지 못하고 큰 그림 그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기 시간과 회독 시간**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독하다보니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판례 암기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허법- <점수: 52.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기초 GS+, 실전 A, 실전 B, 최신판례 강의
- 교재
준특허법 기본서, 사례집, 판례집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기초 GS+	기초 GS+	실전 A	실전 B

【시기별 공부】

25.03 ~ 25.04: 1차 시험 때 기본서를 보면서 스스로 공부하다가 특허법 판례가 직접 문제에 적용되다보니 판례 문구가 rough하다고 느껴졌고, 3주차부터 기초 GS+를 온라인으로 수강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답안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GS를 듣는 친구와 함께 줌으로 답안 작성을 하였습니다. 평일에는 기초 GS에서 나가는 진도의 내용을 회독하고 판례 암기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25.05: 기초 GS에서 약 5 ~ 20%의 성적을 받았는데, 동차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소 실전 A가 아닌 특허 실전 A를 수강하기로 정했습니다. 평일에는 1주일 단위로 쪼개어 준특허법을 회독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업시간에 사례집과 판례집 이야기가 나와 박형준 변리사님과 상담 후 판례집을 보기로 정하였고, 준특허법을 회독하면서 잘 암기가 되지 않는 판례나 문구가 이해되지 않는 판례를 더. 깊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실전 A가 전통적인 리딩 케이스 위주로 문제가 나와서 사례집을 보지 않아 부족한 사례풀이 능력은 수요일에 실전 A 목차 잡아보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 보완했습니다.

25.06: 실전 GS를 수강하면서 평일에는 준특허법만 회독했습니다. 실전 B 문제의 경우 최신 판례 위주로 많이 출제되어 GS 복습은 목차 잡는 시간만 가지고 공부했고, 준특허법을 회독하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회독하면서 GS문제에서 잘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체크해 GS 문제들을 분류했습니다.

GS 끝 ~ 시험: 이 때는 GS문제는 많이 보지 않았고, 준특허법 책을 1주일 단위로 쪼개서 회독했습니다. 이 때 4일 동안 책을 한 번 회독한 후, 하루 동안 잘 외워지지 않았던 판례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 위주로 1회독 했습니다.

【회독 방법】

기초 GS+ 수강 시: 기초 GS+ 수강할 때는 준특허법 책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책에도 중요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차 공부 때 특허법 내용을 많이 이해하고 있어서 기본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독할 때 저번 주에 나간 진도에 나와 있는 판례를 외우는 데 최대한 집중하면서 회독했습니다.

실전 GS 수강 시: 기초 GS+ 수강과 똑같이 준특허법 기본서를 계속해서 회독했습니다. 실전 A를 수강하면서 GS 성적이 주로 30~50%에 나와서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실전 A 문제는 전통적인 리딩 케이스 문제이기 때문에 **목차 잡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리딩 케이스 문제들은 **목차를 통으로 암기**했었는데, 그랬더니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목차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던 것 같습니다.

GS 끝난 후: 준특허법 기본서에서 시험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봐야 하는 내용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선별했던 내용들은 최근 5개년 판례, 잘 외워지지 않는 판례들 위주로 회독했습니다.

【암기 방법】

특허 판례 암기는 두문자와 키워드 암기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준특허법에는 두문자가 다 표시되어 있는데, 입에 달라붙는 두문자는 사용했지만 **대부분 키워드 암기**를 했습니다. 특히 4월까지 특허법 판례를 암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5월부터 민사소송법 판례 암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GS 들어가기 전 많은 판례를 암기**하는 것이 나중에 특허법 암기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차 분들이라면 4월까지 최대한 특허법 판례를 많이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후적 고찰】

동차생들은 5월 기간에 사례집과 판례집 중 선택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판례의 배경, 논리 구조, 결론을 알면 문제에서 판례가 변형되어 출제되더라도 타켓 판례를 알고 더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판례집 회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되돌아보면 사례집을 보는 것이 답안 작성하는데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판례집을 회독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법 전반적인 이해 및 타켓 판례에는 매우 도움이 되지만, 답안 작성의 큰 틀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기출문제는 rough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답안을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득점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례집과 판례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례집**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표법- <점수: 61.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GS를 제외하고 다른 강의는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 교재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기초 GS	실전 A	실전 B1	실전 B2

【시기별 공부】

25.02 ~ 25.03: 기초 GS를 수강함과 동시에 기본서를 회독했습니다. 이 때는 기본서를 4주 동안 쪼개서 회독하며 암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평일에는 기본서를 읽고 해당 파트의 사례집 문제의 목차를 잡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표의 경우 **판례집을 필수**로 보는 것을 추천하는데, 상표는 사실 관계를 알아야 판례 암기도 쉬워지고 문제를 풀 때에도 판례 기반으로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집에서 사실 관계, 판례의 논리, 결론을 모두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5.04: 실전 GS를 시작하면서 기초 GS와 달리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기본서를 읽었습니다. 이미 3월까지 기본서를 회독하면서 판례 암기가 많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상표는 특허나 민사소송법에 비해 판례의 양이 적기 때문에 기본서 회독 속도를 빨리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상표는 특히 상표 과목의 경우 **부논점들이** 많은데 부논점들을 모두 잡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논점들까지 적어낸다면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례집에서 중요한 문제들만 선별해 **자주 빼먹는 논점들**에 대해서는 기본서 앞에 **포스트잇**을 붙여 따로 정리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5.05 ~ 25.06: 실전 B를 들 때는 민사소송법에 치여 상표법 기본서 회독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례집과 사례집은 보지 못했고, 하루에 1.5h정도 투자하여 1주일 동안 상표법 **기본서를 1회독**하느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GS시즌 ~ 시험 전: GS 시즌에 민사소송법, 특허법에 치여 상표를 거의 공부하지 못했기에 판례집 회독 기간, 사례집 회독 기간을 따로 정해서 봤습니다. 특히 GS문제가 있기에 사례집은 4월에 풀었던 문제 중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만 풀어 3일 정도만 사례집을 봤던 것 같습니다. 대신 **판례집 회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최근 **5개년 판례**의 경우 **사실관계, 판례의 논리, 결론**을 모두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독 방법】

상표의 경우 책 별로 회독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먼저 기본서의 경우 **연필**로 밑줄 그으면서 중요한 판례, 학설 등을 외웠고, 외운 부분과 외우지 않은 부분이 분류되는 6월 말부터는 **형광펜**을 사용하며 다음에 힘주고 봐야할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판례집의 경우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판례에서 요지가 아닌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논리**들도 같이 외우려고 표시하며 읽었습니다.

사례집은 큰 비중을 두고 본 것은 아닌데, **중요한 문제들만 선별**해 2번 정도 풀어본 후 그 중 못 풀 문제들을 체크해 6월말에 1회독했습니다.

【암기 방법】

상표 판례 암기는 민사소송법과 특허법보다는 비교적 쉽게 느껴졌습니다. 상표의 경우 대부분의 판례가 사실관계를 모두 알고 나서 암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판례문구가 더 외우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두문자 암기**와 **키워드 암기**를 병행하며 암기했습니다. 상표 판례는 **고려사항을 나열**해서 판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두문자 암기**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점수: 63.33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기본이론강의, 기초GS, 실전 GS

▪ 교재

김선화 변리사님 저 저력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기본이론강의	기초 GS	-	실전 GS

【시기별 공부】

25.03: 민사소송법 기본이론강의를 모두 수강한 후 사례강의 개강 전 1주일 안에 기본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기본강의 자체가 양이 적기도 하고, 저력 책이 적은 양이 압축적으로 잘 서술되어 있어 기본강의를 듣고 복습하는데 하루에 약 2시간 정도 투자했습니다.

25.04: 기초 GS를 수강했습니다. 기초 GS에서 이론을 설명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처음 배우는 법과목이어서 한 번 듣고 법의 구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강생들과 달리 기본이론강의를 듣고 복습한 후, 다시 GS수업을 들으니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GS성적도 상위 10%내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25.06: 5월에는 민사소송법, 특허법의 방대한 양에 치여서 저작권법 책을 한 번도 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생각은 ‘차라리 선택과목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3법 평균을 넘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저작권법을 보지 않다가 실전 GS를 수강하기 전 혼자 기본서를 회독했습니다. 하지만, 기초 GS 때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인지 판례 암기의 선명도가 떨어진 것을 빼고는 기본서가 낫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례 암기도만 올리고 실전 GS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 때에도 민사소송법이 많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풀답안을 작성해보지는 않았고, 목차 잡고 정답만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회독 방법】

김선화 변리사님 저 저력은 책이 얇은데 필요한 내용들만 서술되어 있어 **책이 매우 얇아** 회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 약 140p정도 되어서 1주일 내에 1회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초 GS시즌에는 1주일동안 진도 나간 부분을 약 2h정도 투자하여 회독하였고, 실전 GS시즌에는 1주일동안 1회독을 했습니다.

GS의 경우 기초 GS는 목차 잡는 것이 처음부터 어렵지 않아 복습하는 시간을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실전 GS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 문제를 풀어본 후 답안을 보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30min정도 투자하여 다시 **목차 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암기 방법】

저작권법의 경우 김선화 변리사님이 찍어주시는 판례가 많이 없는데, 그 판례들만 암기했습니다. 판례 암기에는 **두문자**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특허, 상표와 달리 판례 개수가 적기 때문에 두문자로 빨리 외우고 암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암기했던 판례는 전체 책에서 약 20개도 안되는 판례만 외웠던 것 같고, 나머지는 **조문 위주로 푸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되는 포인트들의 **조문의 위치 정도**만 외웠던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의 장점】

저작권법은 **암기할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 선택과목으로서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는 6월, 7월 민/특/상 판례를 암기하기도 바쁜데, 이 때 저작권법은 거의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번 동차 합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처음 법과목을 배워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양 자체가 적은 편이니 동차분들은 저작권법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답안지-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22페이지	약 25자	목차 사이에 엔터O	세로 폭의 3/4 정도
특허법	22페이지			
상표법	21페이지			
저작권법	20페이지			

【글씨 노하우】

저는 원래 글씨를 잘 쓰는 편이 아닙니다. 앞서 1차 계획 세울 때의 사진도 보시면 약필입니다. 저와 같은 약필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텐데, 약필을 바꾸려고 노력하다보면 거기에 시간을 또 투자해야합니다. 대신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아래와 같이 **자신감 있는 글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9쪽

실적은 실용적 계약상업이 실시된 방법이 공헌시 공리라고 부터 특출한 전후가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방법, 이른바 각종실용성에 위임한다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계약상업방 4에 의사합리에 의해 이용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5. 결론.
실용권리와 특허권자의 실용계약의 성공으로 이용되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에는 의의적이지 않음, 실용계약이 원상회복 이용되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위상적의 예외는 타당하다.

참고 사항
(1) 계약의 유효성 검토.
신용에서, 계약의 변의 유효성과 별개 문제다.
(2) 과잉보상 여부.
결정계약 21 6은 22에 따르면, 특허권 계약 1은 계약기간 5년 이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2는 계약기간 5년 이후 계약 1은 3년 동안만 이루어졌는데, 과잉보상 인정.
(3) 과잉보상 여부 판정 관련 사항
A+B는 선행기술 A+B에 비해 진보성이 인정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과잉보상 문제 해결된다.

10쪽

다만, 과잉보상에 따른 손해배상권한 행사상 손해배상권자가 과잉보상이라는 이유로 부결될 수 없다.

7. 결론.
특수 계약 1은 3년 동안 영리한 경우에 대하여 계약은 위반하였는데, 과잉보상에 따른 손해배상권자가 가능하다.
(4) 정정심결의 승급 - 과잉보상 (10항 - 2항) (362 10항).
정정심결의 승급된 취지는 고려하여도 실용계약 6은 2항의 특허권자는 A+B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정정심결 승급의 취지 - 위상적.
특허법 136 10항이 승급은 인정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실용계약의 권리는 이익 정정심결 취지는 특허권자에게 이익은 과잉보상이다. 정정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돌려준다. 모든 공법적, 사법적 조치가 승급으로 볼 수 없다.
very sword

8. 결론.
결국 특수 2는 상여로 과잉보상에 따른 손해배상권자 취지.

7. 결론(2).
1. 계약의 해석.
특수 특허권 계약 A+B의 용어들의 해석의 의의는 계약은 체결하였는데, 이는 특허권의 효력범위가 아닌 방법도 또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은 내용을 다 알고 채점하시기에 완전히 못 알아보는 글씨가 아닌 이상 알아서 채점을 해주시기 때문에 글씨는 크게, 그리고 흔들림 없는 글씨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잘 모르는 문제라도 당황하면 글씨체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일수록 글씨체 유지를 목표로 잡고 답안지를 서술해나가기기를 추천합니다!

【사용한 펜】

저는 펜텔 에너젤 트라디오 0.7을 펜대로 사용했고, 리필심은 펜텔 에너젤 리필심 (LR7 0.7)을 사용했습니다.

【GS 답안작성 팁】

GS 답안작성은 소설입니다. 특히 동차생인 저에게는 20페이지를 모두 아는 내용으로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때 소설이라 함은 없는 내용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본 내용 중 키워드를 발췌하고 살을 붙여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설을 작성하다보면 양을 늘리고 줄이고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의 6. 정정심결 소급효 취지를 보면 '공법적, 사법적' 과 같은 키워드만 암기해놓고 나머지는 GS를 쓰면서 살을 붙인 것인데, 이러한 방법이 GS에서 답안 분량도 채우고 채점위원에게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있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처음에 소설을 쓰려고 하다보면, 펜이 잘 안 나가는데 초등학교생한테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쓰시다보면 소설 쓰는 능력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써보는 것이 실력 상승의 지름길입니다!

-기타-

【시간 관리】

25.03 ~ 25.04: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및 사례강의를 수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하루에 약 11 ~ 12h 정도 공부했고, 시간 투자 비율은 민사소송법 : 특허법 : 상표법 = 7 : 2 : 1 정도의 비율로 공부했습니다.

25.05 ~ 시험 전: 민사소송법 GS를 들으면서, 평일에 혼자 공부할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에 많이 공부해지 못했던 상표법 공부의 비율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2 ~ 13h 정도 공부했고, 시간 투자 비율은 민사소송법 : 특허법 : 상표법 = 6 : 2 : 2의 비율로 공부했습니다. 추가로 25.06 및 25.07에는 저작권법을 약 1h 정도 공부했습니다.

【체력/멘탈 관리】

저는 동차 기간만 보냈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위해 따로 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mind**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차 기간에 힘들었던 기간이 두 시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처음 답안지를 써보기 시작한 2월 말 ~ 3월 중에 '어떻게 이 많은 판례들을 모두 암기하고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하지'라는 막막함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앞서 작성했던 GS 답안작성 팁을 보시면 이러한 시기는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월에는 이제 시험 기간의 절반 정도 지났는데 시험 붙을 실력의 50%도 되지 않은 것 같은 실력인 것 같아 이제까지 공부한 것에 대한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기초 GS를 쓰는데 책을 보지 않으면 판례를 제대로 기술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 변리사 선배님들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방법은 '**단어 트리거**'입니다. 민사소송법의 내용에 대해 깊고 넓게 알고 있지 못하다보니 '어떤 단어가 나오면 어떤 논점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사례집의 여러 문제를 봤었는데 전형적인 문제의 경우 이러한 단어 트리거 방법이 **논점을 추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마 공부하시다보면 이러한 시기가 한 번씩 올텐데 이러한 시기에 혼자 고민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거나 주변에 계신 합격자 분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해 공부에 자신감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동차로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맨 처음 2차를 대비하기 전에는 1차 공부 때 2차를 병행한 것도 아니고 생동차가 얼마 없다는 사실을 듣고는 동차 기간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를 보던 중 60기 최연소 변리사님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과 선배인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과 선배에게 연락해 곽아현 변리사님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고, 많은 공부 팁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과 선배가 생동차로 합격했다는 사실 하나가 동차 기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는데 가장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공부할 때 단순 합격이 아닌 곽아현 변리사님의 2차 등수를 넘겠다는 **경쟁 의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곽아현 변리사님의 최종등수 보다는 낮은 점수지만, 안정적인 점수로 최종 합격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부 장소】

저는 1차 기간의 대부분은 군대 독서실에서 공부했으며, 전역한 후 25.06까지 학원 다닌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25.07부터 집 근처 소음 큰 공사로 근처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했던 장소와 바뀌니 불편함도 있었고, 아침과 밤에 이동해야 하는 시간 및 근처에서 밥을 해결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기에 이러한 점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이동 시간에 음악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자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터디】

저는 스터디 중 **전화 암기 스터디**와 **열풍타 스터디**를 했습니다.

전화 암기 스터디를 할 때에도 부끄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앞서 답안작성 팁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설 쓰는 연습**을 하는 것

이 실제 GS 답안 작성 때 소설 작성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5.03 ~ 25.04: 특허/상표의 판례를 암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들어서 **특/상 전화 암기 스테디**를 했습니다. 맨 처음 암기를 시작했을 때는 약 20회 정도로 판례의 분량을 나누어 스테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외웠던 판례들은 아무래도 암기하기 어렵지 않으니, 그 다음부터는 범위를 약 2배 정도 늘려서 스테디를 했습니다.

25.05: 민사소송법도 판례 암기 스테디를 시작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처음 판례 암기 스테디를 할 때에는 **기초 GS에서 나가는 범위**를 1주일 동안 **쪼개서 암기 스테디**를 했습니다. 이 때 특허와 상표는 범위를 점점 넓혀서 스테디를 진행하다가 **5월 중순부터는 전범위**로 암기 스테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25.06: 특/상은 마찬가지로 전범위로 늘려서 암기 스테디를 했고, 민사소송법은 **6월 중순부터 전범위**로 암기 스테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휴식】

저는 책을 보는 시간만으로도 눈이 아프고 건조해서 밖에 나가서 5분 정도 밖에 나가서 바람 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때 공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총알이나 사진 찍어놓은 통합을 들고가서 외우는 시간을 가지거나, 조금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월비스에서 과목별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가 있다면】

[특허법] 최신판례 강의

동차생들에게 판례강의를 듣는 것은 너무나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할 시간도 많이 부족한데, 판례강의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박형준 변리사님의 최신판례강의는 최신판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안 포맷**을 주시기 때문에 최신판례만이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안 작성 포맷을 외워두신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큰 시간 절약 및 고득점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치며

처음에 군대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기 아까워 준비하게 된 변리사 시험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고 합격 수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rough한 공부 계획을 세우고, 단순히 책을 읽고 암기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공부를 했기에 수험생 입장에서 좋은 팁을 드린 것 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변리사 시험을 자신감 있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세한 상담을 해주신 김동진 교수님, 공부할 수 있도록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주신 이창한 강사님, 멘탈이 힘들 때 포기하지 않도록 조언을 해주신 박형준 변리사님, 항상 자신감을 북돋아줄 수 있도록 좋은 말씀 해주신 김선화 변리사님께 합격수기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공부하기 힘들 때마다 추상적이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받아주시고 추가로 많은 조언도 해주신 60기 최연소 콕아현 변리사님, 61기 오찬솔 변리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리사 시험은 실력은 물론 여러 가지 운적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신 아버지, 집에서 공부할 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어머니, 항상 마인드 컨트롤하는데 많은 조언을 해주었던 누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었던 광곽 친구들과,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동기들 및 여러 주변 지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글로 작성하다보니, 구체적으로 제 의견을 전달하지 못한 점도 많은데 합격수기를 읽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yijun86@snu.ac.kr로 메일 보내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선배 변리사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궁금한 점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본 합격수기를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